

식품오염의

심각성과 반성

강광파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오늘날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의 여파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공해와 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폐수정화 처리시설을 해 놓고도 경비절감을 위해 정상 가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야간을 틈타 각종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산업폐수를 불법 방출한 기사, 전남 신안군 하의면 신도에서 '8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 9명과 소·염소등 가축 40여 마리가 폐죽음을 한 신안 피질이 파라쿼트(paraquat) (상표 그라목손) 농약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기사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최근 농림수산부로부터 폐사한 송아지의 위 속에서 제초제 성분인 파라쿼트가 0.33 ppm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달 11월 26일 역학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우리의 장래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온갖 기계로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대량 소비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쏟아놓은 쓰레기 (1일 6만1천톤)와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나친 물질 위주의 의식이 사람간의 경쟁을 부추켜 인간을 경제의 예속물로 만들고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와 이기주의와 불신을 팽배케 하였다.

한편, 증산 일변도로 치달아온 근대 농업정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무절제하게 사용케 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잔

류되어 자연과 사람을 함께 병들게 하였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생활터전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대자연의 질서 회복과 인간성 회복을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 담당자들이 서로 깊이 관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한치앞도 생각하지 않고 생활의 에너지인 식품에 온갖 농약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무책임하게 생산·공급하여 이로 인한 만성적인 질환이 만연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식품 첨가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황산염에 대해서 알아보자. 변색과 부패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업자들은 아황산염을 과감히(?) 사용하고 있다. 아황산염은 야채와 : 과일을 싱싱하게 보이도록 하며, 포도주는 맑게 보이도록 하고, 고기와 생선은 붉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며, 껍질을 벗긴 연근·우엉·감자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유독성 식품첨가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황산염을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을 보면 호흡곤란, 구토, 메스꺼움, 설사, 복통, 두드러기, 의식불명까지도 일으킨다. 가장 흔한 초기증세는 호흡곤란인데 특히 천식환자와 기관지염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이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건사회부가 식품 위생법에 아황산염 사용을 규제 혹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문제화되고 있다.

요즘도 시장이나 관광지에서 팔고있는 하얗게 말린 도라지나 박꽃이, 무말랭이 등도 아황산염에 처리되어 있는것이 많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식품들은 연탄불에 황산을 태워 그때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말린다니 정말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금전에 눈이 어두운 상흔이 우리 주위에 남아 있음을 생각할 때, 소비자는 더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 일부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하얗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아황산염을 사용한 채소류·과일류·두류·식품등은 구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야채 생산 농가에서는 아황산계의 표백제나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낮고, 사용금지된 사실조차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법 개정안과 그 밖의 계몽이 필요하다. 또 식품제조자는 아황산계의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하얗게 보이는 식품을 안심하고 선호·선택케 해야 한다. 또한, 표백이 된 것은 시장 가격이 높고 오랫동안 두고 팔수 있기에 다시 사용하는 상행위에 장기적인 감시 대책이 요망되며, 그런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위와 같은 상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도의적 책임·의식없이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잘못으로만 매도하는 소비자의 안이한 의식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고를 때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

좀더 깨끗하고, 별레먹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색도 좋아보이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았던가. 파라치온을 희석한 물로 씻어놓은 기름기 흐르는 상추나 반듯한 오이, 까맣게 반질거리는 가지, 농약이 범벅이 된 채소는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제 우리는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생산한 무농약 농산물이나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무공해 식품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애용하여 진정으로 생산자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소비자의 수준높은 의식을 가질 때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되리라 본다.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의 깊은 자기 반성을 통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를 보낼때 진정한 인간적 공존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